

## 인종차별에 맞서는 도시와 대학

메리 앨리스 하다드  
[웨슬리언대학교 동아시아 및 환경학 교수]

미국 내 도시행동계획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두 가지를 꼽는다. 지속가능성/환경 목표에 헌신하는 유급직원을 보유하는 것, 그리고 도시 내 대학을 갖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. 도시 내 직원들은 지역사회에서 환경 활동가들이 환경활동 계획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행동 계획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. 대학과, 특히 지역사회 구성원 및 학생들은 재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, 정책적 노력을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전문성과 노동력을 제공한다. 도시가 인종차별에 맞서기 위해 협력하면서, 기후변화에 맞서고자하는 성공적인 노력으로부터 배운 교훈들이 세계적으로 더욱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기위한 노력에도 적용될 수 있다. 중요한 것은, 도시규모, 소득 및 정치적 성향이, 물론 관계가 있긴 하지만, 그렇다고 어떠한 도시가 야심찬 기후행동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측 하는 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중요성을 갖지는 않는다는 것이다. 소규모의 빈곤 지역 사회가 기후 행동의 최전선에 있기도 하고, 또 인종차별에 맞서는 데 있어 리더가 될수도 있으며, 여기에는 모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.